

---

# 새국어생활 20년 방언 연구의 성과와 반성

김덕호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머리말

국어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에서 국어는 민족의 제일 문화유산이고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어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sup> 이렇게 보전의 대상인 국어가 여러 지역 방언의 총체임을 고려할 때, 방언의 조사와 연구는 국어를 보전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과업이며 살아있는 한국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다. 자료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헌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문화 정책에서 어문 정책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문 정책 중에서도 문화를 담고 있는 방언의 조사와 보전은 우리나라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특별한 과제가 될 것이다.

---

1)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문화의 제일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84년 5월 10일 국어연구소가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국가의 국어 정책과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국어 자료를 수집, 가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방언 및 생활어 등 국어 문화유산을 모아서 보존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였다.

국어연구소가 설립되고 1984년 10월부터 1990년 겨울호까지 23호를 《국어생활》이라는 제호로 기관지를 발간하게 되고, 1991년 봄부터는 《새국어생활》이라고 제호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매년 4호씩 20권을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어생활》 7년과 《새국어생활》의 20년 동안 수록되어 있는 방언 관련 여러 편의 글을 살펴보면서 지역어 보전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새국어생활》에서 방언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 전망해 본다.

## 2. 《새국어생활》의 방언 관련 주요 주제

국립국어원에서 지금까지 《국어생활》과 《새국어생활》을 통해 다룬 방언 관련 특집은 다음과 같다. 1984년 국어연구소 시절 《국어생활》이라는 제명의 계간지로 발간된 이래, 방언에 대한 관심은 1986년 여름호인 《국어생활》 5호에서 처음으로 ‘국어 지역 방언과 그 연구’라는 주제로 방언 연구의 필요성과 방언학의 일반적인 연구의 과정을 소개하는 특집호가 나오면서 시작된다. 이후 1991년 《새국어생활》 가을호(제1권 3호)에서 ‘국어의 경어법’이라는 특집 주제로 관련 글을 수록하면서 특별히 ‘경어 사용에서의 방언 차이’라는 소제목으로 중부 방언, 경북 방언, 서남 방언, 제주도 방언 및 북한 방언의 경어법의 특징을 소개한 내용이 있다. 1998년 겨울호인 《새국어생활》 제8권 4호에서 ‘방언’이라는 특집 주제로 국어의 방언 구획과 각 지역의 방언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

오면서 방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2003년 겨울호인 《새국어생활》 제13권 4호에서는 ‘방언과 문화’라는 주제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방언이나 지역 문화를 담고 있는 방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특집호가 나오면서 학문으로서 방언학과 문화라는 측면에서 발견되는 방언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다. 2010년 가을호인 《새국어생활》 제20권 3호에서는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 특집호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10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을 소개하면서 추진 현황과 성과 및 집적된 지역어 자료의 활용 방안과 문화적 가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어 조사와 보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집호뿐만 아니라 방언에 관련된 글들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방언 속에 묻힌 좋은 우리말(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과 ‘고향 말을 찾아서’라는 방언 관련 연재물들이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으며, 단편적으로 ‘국어 산책’ 분야에서도 전문가, 비전문가의 글들이 수록되었다.

## 2.1. 국어의 지역 방언과 그 연구

‘국어 지역 방언과 그 연구’는 1986년 《국어생활》 여름호(제5호)에 특집으로 실린 주제이다. 이 특집 주제로 실린 글들은 방언 연구에 있어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분야를 연구 논문 형태로 집필한 것들이다.

먼저 권두 소론으로 ‘방언 연구의 필요성(김형규)’이 있다. 필자는 방언 연구를 국어학을 이룩하는 기본적 작업이라고 하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소창진평과 하야육량의 한국어 방언 연구와 해방 이후 척박한 연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루어진 방언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필자의 감회를 밝히고 있다. 또한 방언 연구의

중요성을 국어학 연구와 관련지어 언급하면서 우리말의 과거와 미래를 살필 수 있는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방언의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비전문인의 방언 연구(김완진)’에서는 방언 연구가 다른 국어학 분야와는 달리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임을 밝히면서 방언 연구의 지평이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나 향토 문화 연구에 열정적인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전통 문화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들이 지역 방언의 지킴이 구실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방언 조사의 필요성과 그 방법(이익섭)’에서는 방언 조사를 통해 표준어라는 좁은 세계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언어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언어학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방언 조사를 위해 질문지 작성과 제보자 선정, 전사법에 대한 방법론과 방언 연구자의 소양을 제시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방언 연구사(이승재)’에서 해방 전 일본인 학자인 소창진 평과 하야유타에 의해 언어사학적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던 국어의 방언 연구가 해방 이후 유형과 체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진척되면서 크게 발전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방언 상호간의 비교나 방언 구획에 대한 치밀한 방법론과 방언 접촉, 방언 차용과 같은 유기적인 해석은 거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진정한 ‘방언학’으로서의 성과는 아직 이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 국어의 방언권(전광현)’에서 방언 연구의 중요한 목표는 방언 구획과 방언권의 확인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방언 구획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탈리아와 독일, 우리나라의 방언 구획 업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대방언권 설정을 위해서는 방언 측정법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언의 지리 언어학적 연구와 언어 지도에 대하여(한영균)’에서는 언어 지도를 제작하는 기초적인 방법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이 국어학 내부의 논의들로만 되어 있는데 반해 이 연구는 지리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방언 지도 제작이 방언학의 일부로서 소개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나아가 한국 방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이것이 당시 방언학의 동향을 다루는 특집호에서 소개되었다는 점은 향후 방언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방언사전, 여담(최학근)’에서 필자는 거의 20여 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방언을 정리해서 출판한 경위를 소개하고 있다. 방언에 관련된 현장 자료가 부족했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특집호를 발단으로 ‘국어의 지역 방언’이라는 주제의 연재물이 나오게 된다. 먼저 김영배의 ‘북한 방언의 연구에 대하여’(《국어생활》 제5호, 1986년 여름)를 필두로 현평호의 ‘제주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국어생활》 제6호 1986년 가을), 최명옥의 ‘동남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국어생활》 제7호 1986년 겨울), 이돈주의 ‘전남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국어생활》 제8호 1987년 봄)와 이승재의 ‘전북 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국어생활》 제8호 1987년 봄), 도수희의 ‘충청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국어생활》 제9호 1987년 여름), 이익섭의 ‘강원도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국어생활》 제10호 1987년 가을), 이병근·박경래의 ‘경기도 방언의 연구와 특징’(《국어생활》 제12호 1988년 봄)까지 8차례 연재되면서 전국 방언권역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후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은 방언과 지역 문화를 연관 지어 계속해서 이어진다. 2005년 가을호부터 시작된 ‘고향 말을 찾아서’라는 연재물에서 각 지역별로 방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지역어의 멋과 맛을 소개하고 있다. 이기갑의 '전라남도 방언 이야기'(<< 새국어생활 >> 제15권 3호, 2005년 가을), 이상규의 '경상북도 방언 이야기' (<< 새국어생활 >> 제15권 4호, 2005년 겨울), 김정대의 '경남 방언의 멋과 맛'(<< 새국어생활 >> 제16권 1호, 2006년 봄), 강영봉의 '제주어 이야기'(<< 새국어생활 >> 제16권 2호, 2006년 여름), 한영목의 '충남의 언어 이야기'(<< 새국어생활 >> 제16권 3호, 2006년 가을), 김봉국의 '강원도 말을 찾아서'(<< 새국어생활 >> 제16권 4호, 2006년 겨울), 박경래의 '내 고향은 충북이여유'(<< 새국어생활 >> 제17권 1호, 2007년 봄), 곽충구의 '옛말을 많이 간직한 함경도 방언'(<< 새국어생활 >> 제17권 2호, 2007년 여름) 등이다.

이 외에도 '방언 속에 묻힌 좋은 우리말(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이라는 소제목의 연재물로 이익섭의 '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 국어생활 >> 제7호, 1986년 겨울), 김영배의 '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 국어생활 >> 제8호, 1987년 봄), 이상규의 '함께 쓰고 싶은 경북 방언'(<< 국어생활 >> 제10호, 1987년 가을호와 << 국어생활 >> 제11호, 1987년 겨울호), 김영태의 '공통어로 쓰일 수 있는 경남 방언'(<< 국어생활 >> 제12호, 1988년 봄)이 있다. 이러한 연재물들은 방언 전문가들이 비전문 독자들을 위해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재미있게 엮은 것이다. << 새국어생활 >>이 표방하는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연재물들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연재물 '고유한 우리말을 찾아서'에서 남영신의 '용례를 통해서 보는 아름다운 토박이말(1)(2)'(<< 국어생활 >> 제10호, 1987년 가을호와 제11호 1987년 겨울호)이 나오고, '국어 산책'이라는 연재물에서 오홍일의 '목포 무안 지방의 방언을 찾아서'(<< 새국어생활 >> 제12권 3호, 2002년 가을), 강인숙의 '옛말의 아름다움과 사투리'(<< 새국어생활 >> 제16권 4호, 2006년 겨울)라는 비전문가의 글들도 몇 편 나온다. 아쉬운 점은 비전문가들의 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것이다. 김완진(1986)의 지

적처럼 방언이 전문 학자들에게만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지역에서 문화 지킴이 구실을 하고 있는 비전문적인 향토 방언학자의 좋은 경험도 많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2. 경어 사용에서의 방언 차이

1991년 《새국어생활》 가을호(제1권 3호)에서 ‘국어의 경어법’이라는 특집 주제로 관련 글을 수록하면서 특별히 ‘경어 사용에서의 방언 차이’라는 소제목으로 각 방언권 경어법의 특징을 보여준 경우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상에 따라 활용의 모습이 체계적으로 구현되는 한국어의 경어법을 각 방언권 별로 소개하면서 경어법의 체계를 정리하고 있다. ‘중부 방언의 경어법(유구상)’, ‘경북 방언의 경어법(이상규)’, ‘표준어와 서남 방언(이기갑)’, ‘제주도 방언 존대법의 특징(현평효)’과 ‘북한의 경어법(정재영)’이 소개되어 있다.

유구상은 중부 방언의 상대 경어법을 합니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규는 경북 방언의 경어법을 청자 대우법의 등급 체계로 구분하여 [±수상], [±수하], [±존대]라는 대립 체계로 해설하고 있다. 이기갑은 서남 방언의 상대 높임 체계를 3등분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표준어의 하계체와 이와 유사한 서남 방언의 하소체를 말할이, 들을이와 상황을 조건으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현평효는 제주도 방언 존대법으로 대자 존대 어미인 ‘-우’, ‘-하’, ‘-마썸’, ‘-예’의 쓰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정재영은 북한의 경어법 체계를 기술하고 있다.

## 2.3. 방언

‘방언’은 1998년 《새국어생활》 겨울호(제8권 4호)의 특집 주제이다.

이러한 특집 주제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한국어 방언 구획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업적들을 소개하고, 각 방언권의 언어적 특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여 준다.

‘국어의 방언 구획(최명옥)’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국어의 방언 구획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정리 검토하면서, 방언 구획이 방언 연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방언 구획을 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국어의 방언 구획을 전국 단위의 광역 방언 구획과 도 단위의 협역 방언 구획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남은 과제로 체계적인 조사 항목을 가지고 현지 조사하여 전체 동어선속을 기준으로 정밀하고 타당한 방언 구획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 방언(박경래)’에서는 이 지역 방언의 성격과 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있다. 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곳 방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이 부각되지 않으며 경계도 불분명하고 대상 지역이 넓어 방언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급속한 근대화 와 도시의 팽창으로 주민의 이동이 많고, 표준어의 영향이 커서 전통적인 방언 특징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체 지역을 균형 있게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북 방언(김영배)’에서는 대체로 광복 전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방언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기 중세 국어와 연결하여 문헌의 예를 인용하면서 서북 방언의 음운, 문법, 어휘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동북 방언(곽중구)’에서는 국토의 동북단인 육진 지역을 포함한 함경도 지역의 방언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함경 방언과 그와는 조금 다른 육진 방언의 음운, 형태,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중세 국어의 운소 체계를 계승한 함북 방언의 성조 교체 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방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특징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중세 국어와도 유사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국경에 인접한 지역에서 중국어와 러시아어의 차용으로 인해 이질적인 통사 구조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서남 방언(이기갑)’에서는 이 지역과 인접해 있는 중부 방언 및 동남 방언과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 방언과 상당히 닮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음운과 문법 및 형태를 비교적 많은 예를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남 방언(이상규)’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성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대와 중세 국어를 재구할 수 있는 언어 특징이 많으므로 한국어의 형성 과정에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어가 한국어 모태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남 방언과 경북 방언이 구조적 차이를 상당히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행정 구역의 분할로 인해 동남 방언의 내적 변화를 겪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남 방언의 특징을 음운과 문법, 어휘의 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정승철)’에서는 방언 구획 상 서남 방언에 속하는 ‘추자면’의 방언을 배제하기 위해 제주도만을 ‘제주 방언’이라고 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제주 방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와 상대 경어법의 등급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연변 방언(전학석)’에서는 함경북도 이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중국 연변 지역에서 쓰이는 말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연변 방언의 경우 방언학적 측면에서 크게 들로 나눌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육진 지방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육진 방언 구역과 그외 함경북도의 이주민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연변 방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지역 방언은 함경도 방언과 육진 방언의 특징이 녹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특집호는 ‘방언’이라는 넓은 주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

방언의 특징들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 특집 주제에 맞는 방언 전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방언 보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자 했다면 좀더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2.4. 방언과 문화

2003년 《새국어생활》 겨울호(제13권 4호)에서 ‘방언과 문화’라는 주제로 특집호가 나왔다. 방언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 있다. 그러므로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방언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이런 문화는 다시 문학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작품 속에서 지역 방언으로 구사되기도 한다.

이 특집호는 방언 연구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의미가 있다. 문화라는 관점에서 다른 학문 분야와 통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글들이 소개되어 있어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방언 조사와 연구의 의의(최명옥)’는 소멸 위기에 처한 방언을 조사해야 하는 당위성과 이런 상황에서 방언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를 짚어 본 글이다. 평생 방언학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의 입장에서 방언 조사자와 조사되는 방언이 가지는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방언 조사에서 언어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가 포함되도록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방언은 무형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람직한 방언 조사 방법과 활용 가치(박경래)’에서는 방언 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연구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수집된 방언 자료 역시 이에 따라 그 활용 가치가 달라지며, 방언은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므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방언의 활용 가

치는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데도 방언이 활용되는데, 향토성이 진한 시나 소설 속에 반영된 방언은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방언을 콘텐츠화할 경우 문화 산업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해 '지역 문화와 방언(이기갑)'에서도 필자는 지역 문화를 반영한 전라도 방언의 문화와 방언 표현을 소개하면서 말에 문화가 녹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이상규)'에서는 각 지역 방언들이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등장인물의 개성적인 성격과 향토성, 심미성, 지방성, 현장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색을 다분히 반영한 향토 문학 작품(시, 소설)에서 지역 방언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태도도 방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한 글이다.

《새국어생활》 제6권 1호, 1996년 봄호에 실린 '방언과 한국 문학'(김용직)은 방언 전문가가 아닌 문학 전문가 입장에서 문학과 방언의 상관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전 문학 시기부터 근대 문학과 현대 문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와 소설의 두 분야에서 방언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시의 향기'라는 연재물에서 유종호의 '시와 방언'(《새국어생활》 제12권 4호 2002년 겨울호와 제13권 1호 2003년 봄호) 및 '시와 방언 혹은 구석진 말'(《새국어생활》 제13권 2호 2003년 여름)은 우리 시에 나타난 방언 요소를 문학가의 입장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우리 소설 우리말'이라는 연재물에서는 송하춘의 '토속어 지방어에 대하여 -이문구의 소설 언어-(《새국어생활》 제18권 4호, 2008년 겨울)와 '서울말 소설 언어에 대한 단상 -『창광정기』를 중심으로-(《새국어생활》 제19권 1호, 2009년 봄)라는 연속 2편의 글이 실려 있다. 필자는 지방어로 된 소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충남 보령 출신의 작가가 자신의 소설에서 지방 토속어를 살려 쓰고 있는 것이라든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서울말로 구사하고 있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토속어와 지방어가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 흔적을 찾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삶과 우리말’이라는 연재물에서 김봉국의 ‘방언 속에 깃든 관용적 표현’(《새국어생활》 제20권 3호, 2010년 가을)이 나오는데, 필자는 방언이나 지역어에서 관용적인 표현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방언의 관용적 표현 속에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생활적 특성이 녹아 있다고 밝히면서 각 지역 사람들의 문화 생활적인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관용적 표현이 발견된다고 했다.

## 2.5. 지역어 조사 사업의 성과와 방향

국어연구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립국어원은 지역 방언의 연구와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관심은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새국어생활》 발간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특집호로 다룬 것은 지역 방언이 그만큼 국립국어원의 중요 사업이라는 증거이다. 《새국어생활》 제20권 3호(2010년 가을)에서 특집으로 다룬 ‘지역어 조사 사업의 성과와 방향’은 그간 국립국어원에서 방언의 조사와 보존을 위해 추진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방향과 성과 및 향후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전개 현황(박민규)’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어 조사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전개된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서 45개 지점, 북쪽 지역에서 9개 지점 그리고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 지역 6개 지점(2009년 기준)을 조사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질문 항목 수가 총 3,625개인 ‘지

역어 조사 질문지'(2006)의 발간과 고음질의 보존용 음성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음성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음성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한글 음성 전사 자료'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국외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는 현재 거주 지역의 언어에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한국의 고향 말을 익힌 10대 이후에 집단 이주하여 정착한 1세대 말인 경우는 고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더없이 소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어 조사·보존의 방법론(박경래)'에서 필자는 지역어 조사의 출발은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어의 하위 분화체인 지역어 조사를 위해 조사 목적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조사 목적이 정해지면 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지역어 자료를 잘 보존하는 것은 국어를 잘 보존하는 일인 동시에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일임을 밝히면서 음성과 한글을 동시에 저장하고 보존하여 이후에 전사 자료의 검색과 가공,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의 성과와 활용 방안(이기갑)'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며 1990년에서 1995년까지 이루어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광역적 방언 조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구술 발화를 조사할 수 있는 질문지 개발과 매년 조사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제작한 결과나 12시간 분량의 음성 자료와 4시간 정도 분량의 전사 자료를 확보한 일 등이 그동안의 성과로 소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용 방안도 학문적 측면과 대중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이태영)'에서는 지역어가 한국어 어휘의 보물 창고임을 밝히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와 언어의 관계 및 국어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역어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특집호에는 외국의 지역어 조사와 보전 현황에 대한 글도 수록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어 조사와 보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프랑스의 경우-(송기형)’에서는 프랑스 혁명기 시절부터 방언과 사투리 사용을 근절하고 프랑스어를 강요하는 언어 정책이 19세기부터 지방 언어와 문화 활성화 운동에 힘입어 지역어 조사와 보존을 위한 언어 정책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어를 살려 쓰는 운동은 학교 교육에서만 아니라<sup>2)</sup> 신문, 잡지, 문학서와 방송 매체 등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어의 사전, 문법서, 언어 학습서 편찬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역어 조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등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2008년 하원에서 결정한 ‘지역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라는 조항을 상원에서 거부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만 인정하겠다고 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지역어 조사는 지지부진해졌다.

일본 도호쿠 대학 방언 연구 센터 교수인 고바야시 다카시의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일본의 경우-’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전국적인 방언 조사와 기록에 대하여 조감하면서 전국 약 1,000개의 지점에서 500개 항목을 넘는 방언 분포를 확인하는 ‘사라져 가는 일본어 방언의 기록 조사’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조사가 방언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의 목표는 권역별 지역어를 조사하여

---

2) 1951년에 테익손법이 제정되고 학교에서 지방 언어와 방언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었고, 1969년에 대학입학자격시험(baccalaureat)과 1994년에 중학교 졸업 시험에서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는데, 지역어 전문 교사를 선발하기도 하고, 1987년에는 중등 교육 교사 자격증 시험에서 지역어 과목이 채택되기도 한다. 2005년 피용법에서 모든 교육 과정에 지역 언어와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지역어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된다.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음성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이것을 가지고 지역어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라져가는 지역 방언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접할 수 있으므로 방언의 보전과 후대에 대한 교육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지역어 조사 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와는 대비가 된다. 일본은 지역어 조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일본어의 전국적인 분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언어 지도를 제작했다. 1966년에서 1974년 사이에 전 6권으로 된 300장의 '일본 언어 지도'(Linguistic Atlas of Japan, LAJ)를 제작했고, 198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전 6권으로 된 350장의 '방언 문법 전국 지도'(Grammar Atlas of Japanese Dialects, GAJ)를 발간했다. 또한 조사 지점도 일본은 약 3,200개 지방 자치 단체 중에 각각 2,400개와 800개의 조사 지점을 선정하여 분포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과는 목표와 조사 내역에서 차이가 난다.

### 3. 반성과 전망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몇 가지 특집 주제로 방언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국어연구소 시절에 발간된 《국어생활》 5호에 처음으로 방언 연구의 필요성과 방언학의 일반적인 연구의 과정을 소개한 '국어 지역 방언과 그 연구'가 있다. 《새국어생활》 시절에는 '경어 사용에서의 방언 차이'라는 주제로 경어법에서의 방언 차이를 소개한 내용도 나왔고, '방언'이라는 특집 주제로 국어의 방언 구획과 각 지역의 방언 특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는 방언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에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지만, '방언과 문화'라는 주제의 특집호가 나오면서 방언의 가치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기에 이른

다. 또한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어의 조사와 보존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는 특집호는 10년 사업의 완료 3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집호가 아니더라도 ‘방언 속에 묻힌 좋은 우리말(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과 ‘고향 말을 찾아서’, ‘국어 산책’ 등에서 방언 관련 연재물들이 실리면서 방언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립국어원에서 지역어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사실을 《새국어생활》의 방언 관련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반갑다.

그런데 그동안 나온 《새국어생활》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먼저 비전문가의 지역 방언에 대한 글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특집호나 연재물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집필진이 학계의 전문 학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방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 방언학자뿐만 아니라 향토 문화 지킴이를 자처하는 비전문가들도 많다. 이 분들은 지역 방언을 보존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서 조사하고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유일한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 《새국어생활》이 거듭나려면 향토의 비전문가들에게도 글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아예 향토 방언 지킴이들을 소개하는 특집호를 기획하여 그 분들의 토박이말 사랑을 소개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국민들의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10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난 뒤, 수집된 각 지역 자료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전국 언어 지도를 그려내는 일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것도 어려운 논문으로 된 자료가 아니라 그 분포를 한 눈으로 쉽게 조감할 수 있는 언어 지도와 같은 자료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감안하면 《새국어생활》에서 사업의 결과를 전국 언어 지도로 제작하고 그 방언형의 분포를 지역 문화나



역사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설명하는 글을 연재물로 올린다면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서 독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지역 방언학 연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하고 있다. 급격한 시골 인구의 감소와 많은 지역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지역 방언학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즈음에 지역 방언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잡아 왔던 《새국어생활》도 사회 방언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 방언과 관련된 특집호도 마련하여 사회 방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방언과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새국어생활》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이것을 더 확장하여 지역 방언의 문화 산업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특집호로 기획하는 것은 어떨까? 방언은 살아있는 언어이고, 지역의 문화 코드와 연관이 많다. 그러므로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방언의 문화 산업화에 대한 연구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

《새국어생활》 발간 20년 그리고 이어지는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 거듭나서 국민들에게 국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우리나라 국어학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훌륭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한다.

